

# 수업 고전시가의 재구성

-이별-



## 메모 활용법

모의고사 실력 향상을 위해 평상시 문학과 독서를 분석하도록 하자.

### ■ 시

화자, 청자, 시적 대상, 상황, 정서, 태도를 찾는다. (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면 대신할 수 있는 시어를 찾는다 )

### ■ 소설, 극

인물 관계도, 사건, 배경, 서술 방식, 상징적 소재

### ■ 수필

인물, 사건, 배경, 깨달음

### ■ 독서

단락 정리 및 내용 전개 방식

## 미니 모의고사 푸는 방법

■ 1주일에 5일씩 풀도록 한다.

평일에는 1-5회 문제를 풀고, 토요일에는 틀린 문제 오답을 하도록 한다. 일요일에는 문법을 복습하자.

■ 문학과 독서 지문은 반드시 시간을 체크하여 시간을 관리하도록 한다.

■ 채점은 그날 바로 한다.

■ 모든 문제의 근거는 지문 속에 있다. 반드시 정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아 표시하도록 한다.

■ 틀린 문제는 해설을 바로 보지 말고 맞힐 때까지 다시 풀도록 한다. 정답을 찾았을 때는 해설지와 자신의 근거를 비교하며 확인한다.

■ 틀린 이유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다음에 어떻게 풀어야 맞힐 수 있는지 고민하자. 잘못된 풀이법이 있다면 수정하자.

■ **학생들끼리 복사해서 공부하는 건 OK! 단, 수업용, 과외용으로는 무단 복사 및 배포 금지!**

# 미니 모의고사

수특 고전시가 -이별-

총 소요 시간

맞은 개수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7년 6월

(가)

고려 속요는 고려 시대 궁중에서 형성되어 조선 시대까지 궁중 연향(宴饗)에서 전승되어 불린 노래를 가리킨다. 고려 속요의 기원과 형성에는 민간의 노래가 관여되었다.

민간의 노래가 궁중 잔치의 노래로 사용된 연원은 중국의 오래된 시집인 시경(詩經)의 ‘풍(風)’에서 찾을 수 있다. ‘풍’에 는 민간의 노래가 실려 있는데 사랑 노래가 대부분이다. ‘풍’에 실린 노래는 중국은 물론 고려와 조선의 궁중 잔치에서도 불렸다. 또한 조선의 궁중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연향 악곡을 선정하였다.

남녀 간의 사랑 노래를 포함한 민간의 노래가 궁중악으로 수용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왕을 정점으로 하는 통치 구조에서는 왕권을 공고히 하고 풍속을 교화(教化)하는 수단이 필요했는데, 예법(禮法)과 음악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때 그 과정에서 민중의 생활상을 진솔하게 반영한 노래 가운데 인류의 차원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노래들은 통치 질서를 구현하기에 적합한 노래로 여겨져 궁중악으로 편입되었다. 특히 남녀 간의 사랑 노래는 그 화자와 대상이 ‘신하’와 ‘임금’의 구도로 치환되기 용이했기 때문에 궁중악으로 편입될 수 있었다. 이처럼 민간 가요의 궁중 악곡으로의 전환은 하층에서 상층으로의 편입·흡수 과정을 통해 상·하층이 노래를 함께 향유한 화합의 차원으로 볼 수 있다.

[A] 關關雎鳩(관관저구) 꾸욱꾸욱 우는 물수리 한 쌍  
 在河之洲(재하지주) 하수(河水)의 모래톱에 있다.  
 窈窕淑女(요조숙녀) 요조숙녀는  
 君子好逑(군자호구) 군자의 좋은 짝이로다.

위의 시는 ‘풍’에 실린 「관저(關雎)」편 첫째 작품으로 작품의 짜임은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미 짝을 지은 물수리 암수의 모습과 앞으로 짝을 이룰 요조숙녀와 군자의 모습이 상응하면서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화로움을 노래한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문왕(文王)과 후비(后妃)<sup>1)</sup>의 덕을 읊은 것, 부부간의 화락(和樂)과 공경(恭敬)을 읊은 것, 풍속 교화의 시초 등 이 노래에 대한 평(評)이 이를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노래는 궁중에서 불렸을 때 국가적 차원의 의미까지 담게 될 여지를 갖게 된다.

한편, 고려 속요와 『시경』의 ‘풍’은 공통점이 있지만 고려 속요는 ‘풍’과 구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고려 속요는 민간의 사랑 노래가 궁중악으로 정제되어 편입되는 과정에서 변화를 겪기도 했다. 즉 작품의 특정 부분

에 긴밀한 유기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형식적 장치를 마련하여 한 작품이 구성 될 때 ㉠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더하였다. 그리고 궁중 연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특정한 부분이 덧붙여지기도 했다. 예컨대, 전체적으로 애뜻한 그리움의 정서를 보이는 작품에 ㉡ **송축의 내용**을 담거나 ㉢ **이별의 상황과 동떨어진 시어**를 붙이기도 한다. 「동동」과 「가시리」는 이러한 변화를 비교적 잘 보여 주고 있다.

(나)

덕(德)으란 곱비에 받좁고 복(福)으란 립비에 받좁고  
 덕(德)이여 복(福)이라 호놀 나스라 오소이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서사>

정월(正月)스 나릿뜨른 아으 어저 녹저 흐논딤  
 누릿 가운데 나곤 몸하 흐올로 녀서  
 아으 동동(動動)다리

<정월령>

이월(二月)스 보로매 아으 노피 현 등(燈)스불 다호라  
 만인(萬人) 비취실 즈시샷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이월령>

삼월(三月) 나며 개(開)흐 아으 만춘(滿春) 들릿고지여  
 녹딤 브롤 즈슬 디너 나샷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삼월령>

- 작자 미상, <동동>-

(다)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버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덕(大平盛代)

날리는 엇디 살라 흐고  
 버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덕(大平盛代)

잡스와 두어리마는는  
 선희면 아니 올세라  
 위 증즐가 대평성덕(大平盛代)

설은 님 보내옵노니 나는  
 가시는 듯 도서 오쇼셔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덕(大平盛代)

- 작자 미상, <가시리>

1) 문왕과 후비 : 고대의 이상적인 성인 군주와 그의 부인인 태사.

경리	
----	--

1.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려 속요는 조선 시대까지 궁중 연향에서 사용되었다.
- ② 시경의 '풍'은 조선의 궁중악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 ③ 시경의 '풍'에 실린 노래에는 민중의 삶이 반영되어 있다.
- ④ 시경의 '풍'과 고려 속요는 모두 상층 노래가 하층 문화에 영향을 준 결과물이다.
- ⑤ 궁중악에서는 남녀의 사랑이 군신 간의 관계로 확장, 전환되어서 해석될 수 있었다.

2. ㉠~㉣을 바탕으로 [나]와 [다]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의 '아으 동동다리'는 ㉠의 예로 볼 수 없다.
- ② [나]의 <서사>에서 '아으 동동다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의 예로 볼 수 있으나, ㉣의 예로는 볼 수 없다.
- ③ [나]의 <서사>에서 '아으 동동다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의 예로 볼 수 있다.
- ④ [다]의 '위 증즐가 대평성덕'은 ㉢의 예로 볼 수 있으나, ㉣의 예로는 볼 수 없다.
- ⑤ [다]의 제1연에서 '위 증즐가 대평성덕'을 제외한 나머지는 ㉡의 예로 볼 수 있다.

3. [가]를 참고하여 [A], [나], [다]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에서는 자연과 인간 간의 조화로움이, [나]의 <정월령>에서는 남녀 간의 사랑으로 인한 외로움이 드러나 있군.
- ② [A]의 '물수리 한 쌍'과 [나]의 '만춘 들윗곳'은 생활 속에서 민중이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대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군.
- ③ [A]에서는 화락의 상황을, [다]에서는 이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군.
- ④ [A]에서는 제1행과 제2행이, [다]에서는 제1연과 제2연이 대상의 변화에 따른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군.
- ⑤ [A]에서는 풍속을 교화할 만한 이상적인 사랑을, [나]에서는 모두가 우러러볼 만한 '덕'을, [다]에서는 '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08년 6월

(가)  
 들가에 떨어져 나가 앓은 메기늬의  
 넓은 바다의 물가 뒤에,  
 ㉠ 나는 지으리, 나의 집을,  
 다시금 큰길을 앞에다 두고,  
 길로 지나가는 그 사람들은  
 제가꿈 떨어져서 혼자 가는 길.

하이얀 여울턱에 날은 저물 때.  
 나는 문(門)간에 서서 기다리리

[A] 새벽 새가 울며 지새는 그늘로  
 세상은 희게, 또는 고요하게,  
 번쩍이며 오는 아침부터,  
 지나가는 길손을 눈여겨보며,  
 그대인가고, 그대인가고.

- 김소월, 「나의 집」 -

(나)  
 잃어 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B]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 윤동주, 「길」 -

(다)  
 ㉤ 생사(生死) 길은  
 예 있으면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아,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 월명사, 「제망매가(祭亡妹歌)」 -

정리

4.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과 자연의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②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이 드러나 있다.
- ③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제시되어 있다.
- ④ 바람직한 세계에 대한 확신을 그리고 있다.
- ⑤ 상황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 나타나 있다.

5. [A]와 [B]에 나타나 있는 시간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시간이 감각적인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다.
  - ② [B]에서는 시간이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③ [B]에서는 시간이 공간과 결합되어 형상화되어 있다.
  - ④ [A]에서는 [B]와는 달리 시간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A]에서는 시간이 화자의 기다림과, [B]에서는 시간이 화자의 고뇌와 연관되어 있다.

6. (나)의 '하늘'과 (다)의 '미타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하늘'과 '미타찰'은 화자가 몸을 담고 있는 공간이다.
  - ② '하늘'은 숭고함을, '미타찰'은 비장함을 자아내는 공간이다.
  - ③ '하늘'과 '미타찰'은 화자에게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이다.
  - ④ '하늘'은 화자의 반성을, '미타찰'은 화자의 지향을 함축하는 공간이다.
  - ⑤ '하늘'은 자연의 영원성을, '미타찰'은 인간의 유한성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집'은 탈속한 삶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상징하고 있다.
  - ② ㉡의 '더듬어'는 화자의 내면적인 방향을 함축하고 있다.
  - ③ ㉢에서는 '돌'을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무거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의 '풀 한 포기 없는'은 화자가 처한 상황이 황량함을 표현하고 있다.
  - ⑤ ㉣의 '머뭇거리고'는 생사의 문제에 대한 인간적 고뇌를 담고 있다.

8.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문장을 도치시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음절의 수를 조절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 ③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④ 색채어를 통해 작품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토속적인 방언을 사용하여 향토적 정감을 환기하고 있다.

9. (다)의 ㉠, ㉡와 <보기>의 밑줄 친 시어들을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A. 간밤에 부던 **바람** 만정 **도화(桃花)** 다 지겠다  
 아이는 비를 들어 쓸려고 하는구나  
 낙화인들 꽃이 아니라 쓸어 무엇 하리오

B. **바람** 불어 쓰러진 **나무** 비 온다 짝이 나며  
 임 그려 든 병이 약 먹다 나올쏘나  
 저 임아 널로 든 병이니 네 고칠까 하노라

- ① ㉠와는 달리 A의 '바람'은 화자의 시련을 상징하고 있다.
- ② ㉠와 B의 '바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③ ㉡와는 달리 A의 '도화'는 화자의 감회와 흥취를 부각하고 있다.
- ④ ㉡와는 달리 B의 '나무'는 화자 자신을 비유하고 있다.
- ⑤ ㉡, A의 '도화', B의 '나무'는 수동성을 함축하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03년 4월

(가)  
 내 님을 그리워하여 우니다니  
 ㉠山(산) 峽동새 난 이숫하요이다.  
 아니시며 거츠르신 달 아으  
 ㉡殘月曉星(잔월효성)이 아라시리이다.  
 녁시라도 님은 한대 녀저라 아으  
 베키더시니 뉘러시니잇가.  
 過(과)도 허믈도 千萬(천만) 업소이다.  
 말히마리신더<sup>1)</sup>  
 살웃븐더<sup>2)</sup> 아으  
 니미 나를 하마 니자시니잇가.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

- 정서, <정과정>

(나)  
 ㉢梨花雨(이화우) 흘뿌릴 제 울며 잡고 離別(이별)한 님  
 秋風落葉(추풍 낙엽)에 저도 ㉣날 생각난가.  
 千里(천 리)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매.

- 계랑의 시조

(다) 님다히 消息(소식)을 아쁘려나 아자 하니 오날도 거의  
 로다. 내일이나 사람 올라. 내 마음 들 대 업다 어드러로  
 가갓 말고. 잡거니 밀거니 놓픈 뉘헤 올라가니 구름은카니  
 와 안개난 므사 일고. 山山川川이 어둡거니 ㉤日日月월을  
 었디 보며 咫咫尺척을 모라거든 千千里리랄 바라보라. 찰  
 하리 물가의 가 배길히나 보자 하니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  
 둥정 된더이고. 샹공은 어대 가고 뵤 배만 걸렷나니. 江  
 江川턴의 혼자 서서 디난 해를 구버보니 ( ㉥ ) 茅  
 모簷(염) 찬 자리의 밤등만 도라오니 半半壁벽靑靑燈燈은 늘  
 위하야 발갓난고. 오라며 나리며 헤뜨며 바니니 저근뉘 力  
 녁盡진하야 풋잠을 잠간 드니 精精誠誠이 지극하야 꿈의  
 님을 보니 玉玉 가탄 얼굴이 半半이나마 늘거세라. 마음의  
 머근 말삼 슬카장 삶자 하니 눈물이 바라 나니 말인들 어  
 이하며 情情을 못다하야 목이조차 메여하니 오던된 ㉦鷄  
 鷄聲의 잠은 었디 깨뉘던고.

- 정철, <속미인곡>

1) 말히마리신더 : 못사람들의 참조하는 말입니다.  
 2) 살웃븐더 : 슬프구나(또는 사죄고 싶구나, 사라지고 싶구나)

정리

10.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 (나)는 대조적인 이미지로 이별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가), (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나), (다)에는 (가)에 비해 계절감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
- ④ (가), (나), (다)의 화자는 모두 자신의 미래를 낙관하고 있다.
- ⑤ (가), (나), (다)의 화자는 모두 임과의 재회를 소망하고 있다.

11. <보기>의 화자가 (가)의 화자에게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어저 내 일이야 그릴 줄을 모로다나.  
 이시라 하더면 가라마는 제 구태여  
 보내고 그리는 情(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 황진이이 시조

- ① 당신의 마음을 천지신명만큼은 반드시 아실 것입니다.
- ② 차라리 깨끗하게 모든 것을 단념하고 새 출발을 하세요.
- ③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 ④ 혹시 자신에게 잘못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 ⑤ 사람은 때때로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12. <보기>는 ㉠에 대한 해설이다. <보기>를 참고할 때, (가), (다)의 밑줄 친 부분 중 ㉠과 유사한 심리가 담겨 있는 것은?

<보기>

‘날 생각난가’에는 화자의 이중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 즉, ‘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라는 기대감과 ‘날 잊었을지도 몰라.’라는 의구심의 이중 심리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 ① 過(과)도 허물도 千萬(천만) 업소이다.
- ② 니미 나를 하마 니자시니잇가.
- ③ 내 마음 둘 대 업다 어드러로 가갓 말고.
- ④ 咫지尺척을 모라거든 千천리리랄 바라보랴.
- ⑤ 半半壁벽靑靑燈燈은 늘 위하야 발갓난고.

13. 문맥으로 보아, ㉡에 들어갈 시구로 적절한 것은?

- ① 넓거든 기노라 프르거든 희디마나.
- ② 듯거니 보거니 늦길 일도 하도할샤.
- ③ 오르디 못흐거니 느려가미 고이홀가.
- ④ 님다히 消消息식이 더욱 아득한더이고.
- ⑤ 무릉(武陵)이 갓갑도다, 저 매이 권 거인고.

14. ㉠~㉡ 중, <보기>의 ㉠과 성격이 유사한 것은?

<보기>

㉠를 여라믄이나 기르되 요 개같이 알미오랴.  
뫼운 님 오며는 꼬리를 뽕뽕 치며 뛰락 나리 뛰락 반겨서  
내달고 고운 님 오며는 뒷발을 버둥버둥 므르락 나으락 캉  
캉 즈져서 도라가게 한다.  
원 밥이 그릇그릇 난들 너 머길 줄이 이시랴.  
- 작자 미상의 사설 시조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04년 9월

(가)  
 내 님들 그리스와 우니다니  
 산(山) 접동새 난 이숫호요이다  
 아니시며 거츠르신 들 아으  
 ㉠ 잔월효성(殘月曉星)이 아라시리이다  
 녁시라도 님은 흐터 녀져라 아으  
 버기더시니<sup>1)</sup> 뉘러시니잇가  
 과(過)도 허믈도 천만(千萬) 업소이다  
 물헛마리신더<sup>2)</sup>  
 슬웃븐더<sup>3)</sup> 아으  
 니미 나를 흐마 니즈시니잇가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  
 - 정서, <정과정(鄭瓜亭)>

(나)  
 어이 못 오던가 무삼 일로 못 오던가  
 ┌ 너 오는 길에 무쇠로 ㉡ 성을 쌓고 성 안에 담 쌓고 담  
 └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뉘주 놓고 뉘주 안에 꿩을 놓  
 [A]고 그 안에 너를 필자형(必字形)으로 결박하여 넣고 쌍  
 ┌ 배목(雙排目)<sup>4)</sup> 결쇠에 금거북 자물쇠로 수기수기 잠가  
 └ 있더냐 네 어이 그리 아니 오더냐  
 한 해도 열두 달이오 한 달 서른 날에 ㉢ 날 와 볼 하루  
 없으랴  
 - 작자 미상의 시조

(다)  
 의복을 돌아보니 한숨이 절로 난다  
 남방염천(南方炎天) 찌는 날에 빨지 못한 누비바지  
 땀이 배고 때 오르니 굴뚝 막는 덕석인가  
 덥고 검기 다 버려도 내음새는 어찌하리  
 어와 내 일이야 가련이도 되었고나  
 손잡고 반기는 집 내 아니 가웁더니  
 등 밀어 내치는 집 구차하게 빌어 있어  
 옥식진찬(玉食珍饌)<sup>5)</sup> 어디 가고 맥반염장(麥飯鹽藏)<sup>6)</sup> 되  
 었으며  
 금의화식(錦衣華飾)<sup>7)</sup> 어디 가고 현순백결(懸鶉百結)<sup>8)</sup> 되  
 었는고  
 이 몸이 살았는가 죽어서 귀신인가  
 말하니 살았는가 모양은 귀신일다  
 한숨 끝에 눈물 나고 눈물 끝에 어이없어  
 도로혀 웃음 나니 미친 사람 되겠구나  
 어와 보리가을 맥풍(麥風)이 서늘하다  
 앞산 뒷산에 황금을 펼쳤으니  
 지계를 벗어놓고 앞 산을 굽어보며  
 ㉣ 한가히 베는 농부 문노라 저 농부야  
 밥 위에 보리 단술 몇 그릇 먹었느냐  
 청풍에 취한 얼굴 깨본들 무엇하리  
 연년(年年)이 풍년 드니 해마다 보리 베어  
 마당에 두드리고 용정(春精)<sup>9)</sup>에 쓸어내니  
 일분(一分)은 밥쌀하고 일분(一分)은 술쌀하여

밥 먹어 배부르고 술 먹어 취한 후에  
 함포고복(含哺鼓腹)하고 격양가(擊壤歌)를 부르는 양  
 농가의 좋은 흥미 저런 줄 알았다면  
 공명을 탐치 말고 농사에 힘쓸 것을  
 ㉠ 백운(白雲)이 즐기는 줄 청운(靑雲)이 알 양이면  
 꽃 탐하는 벌나비 그물에 걸렸으랴  
 - 안조원, <만언사(萬言詞)>

- 1) 버기더시니: 우기던 사람이.
- 2) 물헛마리신더: 못 사람의 험뜯는 말이로다.
- 3) 슬웃븐더: 슬프구나.
- 4) 쌍배목: 쌍으로 된 문고리를 거는 쇠.
- 5) 옥식진찬, 7)금의화식: 좋은 음식과 의복.
- 6) 맥반염장, 8)현순백결: 빈약한 음식과 누더기 옷.
- 9) 용정: 곡식을 찼음.

정리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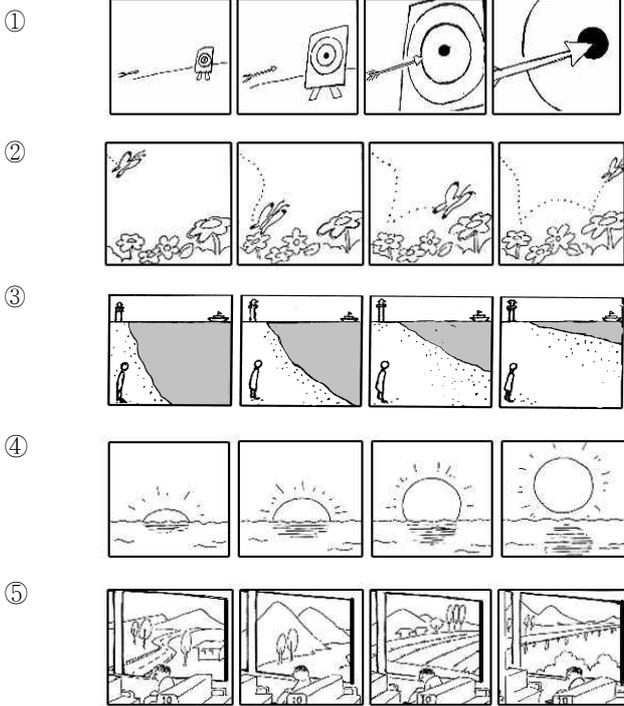
20. (가)~(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화자의 태도는?

- ① 현실에 대해 냉소하고 있다.
- ② 상대방을 원망(怨望)하고 있다.
- ③ 부당한 현실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 ④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 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있다.

21. (가), (나)의 표현상의 특징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가)는 대구와 대조를 통해 울동감을 높이고 있다.
- ② (가)는 설명적 진술을 통해 호소력을 높이고 있다.
- ③ (나)는 비유와 상징을 통해 다양한 의미를 암시하고 있다.
- ④ (가), (나)는 자연물에 의탁하여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 (나)는 의문문을 사용하여 말을 거는 듯한 효과를 내고 있다.

22. (나)의 [A]의 시상 전개 방식을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가장 적절한 것은?



23. <보기>를 참조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작품의 창작 및 향유 상황을 고려할 때, 유배가사를 단순히 유배지에서의 삶을 그린 가사로 보기는 어렵다. 유배가사는 작가가 유배지에서 풀려날 목적으로 임금에게 자신의 목소리가 전달되기를 기대하며 지은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지었다고 가정했을 때,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이 더욱 정교해지고 풍부해질 수 있다.

- ① 자신을 ‘벌나비’에 빚댄 것은 자신의 죄를 유혹에 약한 인간 본성의 탓으로 돌리려는 것이 아니었을까?
- ② 죄에 대한 벌을 충분히 받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유배지에서의 고난을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겠군.
- ③ 자신을 ‘미친 사람’이라고 인식한 것은, 유배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 ④ ‘그물에 걸렸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작가가 죄를 지으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겠군.
- ⑤ 공명(功名)에 대한 욕심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작가가 유배에서 풀려나면 벼슬길에 다시는 나아가지 않겠군.

2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화자의 결백과 심적 상황을 암시한다.
- ② ㉡ : 화자와 ‘너’ 사이에 놓여 있는 장벽을 의미한다.
- ③ ㉢ : ‘너’에 대한 그리움과 가벼운 책망이 공존한다.
- ④ ㉣ : 정신적, 물질적인 여유를 지닌 대화 상대자이다.
- ⑤ ㉤ : 안타까움과 후회의 정서를 비유적으로 나타낸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98년 수능

(가)  
 비 개인 긴 강둑엔 풀빛이 질었는데  
 남포에서 그대 보내니 슬픈 노래 올리네.  
 대동강 물은 그 언제나 다할런가  
 해마다 이별의 눈물 푸른 물결에 더하거니.  
 - 정지상의 「송인(送人)」

(나)  
 청산(靑山)은 내 뜻이오 녹수(綠水)는 님의 정(情)이  
 녹수(綠水) 흘러간들 청산(靑山)이야 변(變)홀손가.  
 녹수(綠水)도 청산(靑山)을 못 니져 우리 예어 가노고.  
 -황진이의 시조

(다)  
 건곤(乾坤)이 폐식(閉塞)하야 백설(白雪)이 흔 비친 제,  
 사름은쿠니와 늘새도 극쳐 있다. 쇼상 남반(瀟湘南畔)\*도  
 치오미 이리커든, 옥누(玉樓)\* 고쳐(高處)야 더욱 날너  
 모습허리. 양춘(陽春)을 부쳐 내여 님 거신 디 쏘이고져, 모  
 첨(茅簷)\* 비친 히를 옥누의 올리고져. 홍상(紅裳)을 니피  
 츠고 취슈(翠袖)\*를 반만 거더, 일모(日暮) 슈독(脩竹)\*의  
 험가림도 하도 할샤. 다룬 히 수이 디여 긴 밤을 고초 안  
 자, 청등(靑燈) 거른 것틱 던공후(鈿箜篌)\* 노하 두고, 쏜  
 의나 님을 보려 틱 맞고 비겨시니, 양금(鴛鴦)도 츠도 출  
 샤 이 밤은 언제 썰고.  
 하르도 열두 썩 혼 들도 설흔 날, 저근덧 싱각 마라 이  
 시름 닛자 하니, 막음의 띠쳐 이셔 골슈(骨髓)의 썩터시니,  
 편작(扁鵲)이 열히 오나 이 병을 었디 허리. 어와 내 병이  
 야 이 님의 타시로다. 출하리 식어디여 범나비 되오리라.  
 곳나모 가지마다 간 디 족족 안니다가, 향므든 놀애로 님  
 의 오시 올므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 조츠려  
 흥노라.  
 - 정철의 「사미인곡(思美人曲)」에서

\*쇼상 남반(瀟湘南畔) : 소상강 남쪽  
 \*옥누(玉樓) : 옥황상제가 있는 곳  
 \*모첨(茅簷) : 초가집 처마  
 \*취슈(翠袖) : 푸른 소매  
 \*슈독(脩竹) : 긴 대나무  
 \*던공후(鈿箜篌) : 자개 장식을 한 공후

정리	
----	--

25. (가)~(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임의 태도를 원망하고 있다.
- ② 임을 보내면서 부른 노래이다.
- ③ 이별을 운명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 ④ 이별의 상황을 공간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⑤ 사랑의 속절없음에 대한 한탄이 주된 정서이다.

26. (가)의 4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행의 ‘풀빛’과 시각적으로 어울린다.
- ② 과장된 표현으로 이별의 슬픔을 강조하고 있다.
- ③ 3행의 ‘언제나 다할런가’와 의미가 호응한다.
- ④ 이별의 정한(情恨)이 깊은 강물의 흐름과 어우러진다.
- ⑤ 해마다 더해 가는 현실에 대한 무상감이 푸른 물결과 대응한다.

27. (나)의 시적 형상화 방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굳은 뜻과 변하는 정(情)을 대조시켰다.
- ② 울음을 물이 소리 내어 흐르는 것에 비유했다.
- ③ 청산(靑山)은 불변한다는 관습화된 상징을 이용했다.
- ④ 정(情)이 변하는 것을 물이 흘러가는 것으로 구상화했다.
- ⑤ 이별을 청산(靑山)의 탈속적(脫俗的)인 이미지로 나타냈다.

28. <보기>의 시조는 상상력을 통해 대상을 주관적으로 변용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변용이 이루어진 대상을 (다)에서 찾으려면?

<보기>

冬至(동지)사들 지나긴 밤을 한허리를 버혀 내여  
 春風(춘풍)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라.

- ① 옥누(玉樓)                      ② 양춘(陽春)
- ③ 홍상(紅裳)                      ④ 양금(鴛鴦)
- ⑤ 골수(骨髓)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98년 수능

(가)

㉠ 돌하 노피곰 도드샤  
어기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기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저재 너리신고요  
어기야 ㉡ 즌 디를 드티올세라.  
어기야 어강도리  
어느이다 노코시라.  
어기야 내 가논 디 점그를세라.  
어기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 「정읍사(井邑詞)」

(나)

철령(鐵嶺) 노픈 봉(峯)을 쇠여 넘는 저 구름아.  
고신원루(孤臣冤淚)를 비 사마 썩여다가,  
님 계신 구중심처(九重深處)에 썩러 본들 엇디리.  
- 이항복의 시조

(다)

동풍(東風)이 건듯 부러 적설(積雪)을 헤터 내니  
창밧기 심근 매화(梅花) 두세 가지 띄여세라  
긱득 냉담(冷淡)흔디 암향(暗香)은 므스 일고  
황혼의 들이 조차 벼마티 빗최니  
늦기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더 매화 것거 내여 님 겨신 디 보내오져  
님이 너를 보고 엇디타 너기실고  
솟 디고 새님 나니 녹음(綠陰)이 솔렛는디  
나위(羅幃)\*적막하고 수막(繡幕)\*이 뷔여 잇다  
부용(芙蓉)\*을 거더 노코 공작(孔雀)\*을 둘러 두니  
긱득 시름 한디 날은 엇디 기뻏던고  
원앙금(鴛鴦錦) 버혀 노코 오색선(五色線)\* 플터내여  
금자희 견화이셔 님의 옷 지어 내니  
수품(手品)\*은마니와 제도(制度)\*도 그줄시고  
산호수 지게 우희 백옥함(白玉函)의 다마 두고  
님의게 보내오려 님 겨신 디 브라보니  
㉢ 산(山)인가 구름인가 머흐도 머흘시고  
천리만리(千里萬里) 길히 뉘라셔 츠자갈고  
니거든 여러 두고 날인가 반기실가  
흐르밤 서리감의 기러기 우러 널 제  
위루(危樓)에 혼자 올라 수정렴(水晶簾)을 거든마리  
동산(東山)의 들이 나고 북극(北極)의 별이 보니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청광(淸光)을 띄워 내여 봉황루(鳳凰樓)\*의 붓티고져  
누(樓) 우희 거러 두고 팔황(八荒)\*의 다 비최여  
심산궁곡(深山窮谷)\* 점낫마티 밍그쇼셔  
건곤(乾坤)이 폐식(閉塞)하야 백설(白雪)이 혼 빗친 제  
사름은마니와 늘새도 긱쳐 잇다

쇼상 남반(瀟湘南畔)도 ㉣ 치오미 이리커든  
옥누 고쳐(玉樓高處)야 더욱 날너 므스헝리  
양춘(陽春)을 부쳐 내여 님 겨신 디 쏘이고져  
모침(茅簷) 비친 히를 옥누(玉樓)의 울리고져  
홍상(紅裳)을 니미츠고 취슈(翠袖)를 반(半)만 거더  
일모 슈죽(日暮脩竹)의 췌가림도 하도 할샤  
다른 히 수이 디여 ㉤ 밤을 고초 안자  
청등(靑燈) 거른 것티 던공후(鈿篋篋) 노하 두고  
꿈의나 님을 보려 틱 밧고 비겨시니  
양금(鴛衾)도 츠도 출샤 이 밤은 언제 썰고  
헝르도 열두 췌, 헝 들도 설흔 날  
저근딛 싱각 마라, 이 시름 닛자 헝니  
므음의 미쳐 이셔 골슈(骨髓)의 췌터시니  
㉥ 편작(扁鵲)이 열히 오나 이 병을 엇디헝리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타시로다.  
㉦ 출하리 석어디여 범나삐 되오리라  
곳나모 가지마다 간 디 족족 안니다가  
향 므든 놀애로 님의 오식 올므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 조츰려 흐노라

- 정철, <사미인곡>

- \* 나위: 비단으로 만든 장막. \* 수막: 수놓은 장막.
- \* 부용: 연꽃. 여기서는 연꽃을 수놓은 비단 휘장을 말함.
- \* 공작: 꿩과의 새. 여기서는 공작을 수놓은 병풍을 말함.
- \* 오색선: 다섯 가지 빛깔의 실. \* 수품: 솜씨.
- \* 제도: 격식. \* 봉황루: 임금이 계시는 대궐.
- \* 팔황: 온 세상을 이르는 말.
- \* 심산궁곡(深山窮谷) : 깊은 산속의 험한 골짜기

정리	
----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06년 09월

(가)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積雪)을 헤쳐 내니  
 창 밖에 심은 매화 ㉠ 두세 가지 피었어라  
 가뜩 냉담한데 암향(暗香)은 무슨 일고  
 황혼의 달이 좇아 ㉡ 베개 밑에 비치니  
 느끼는 듯 반기는 듯 임이신가 아니신가  
 저 매화 꺾어 내어 임 계신 데 보내고저  
 임이 너를 보고 어땠다 여기실꼬  
 꽃 지고 새 잎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나위(羅幃) 적막하고 수막(繡幕)이 비어 있다  
 부용(芙蓉)을 걸어 놓고 공작(孔雀)을 둘러 두니  
 ㉢ 가뜩 시름 많은데 날은 어찌 길던고  
 원앙금(鴛鴦錦) 베어 놓고 오색선(五色線) 풀어 내어  
 ㉣ 금자로 겨누어서 임의 옷 지어 내니  
 수품(手品)은 물론이고 제도(制度)도 갖출시고  
 산호수(珊瑚樹) 지게 위에 백옥함(白玉函)에 담아 두고  
 ㉤ 임에게 보내려고 임 계신 데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천리만리 길에 뉘라서 찾아갈꼬  
 가거든 열어 두고 나인가 반기실까

- 정철, 「사미인곡」 -

(나)  
 집을 치면, 정화수(精華水) 잔잔한 위에 아침마다 새로  
 생기는 ㉠ 물방울의 선선한 우물집이었을래. 또한 윤이 나  
 는 마루의, 그 끝에 평상(平床)의, 갈앉은 뜨락의, 물 냄새  
 창창한 그런 집이었을래. 서방님은 바람 갈단들 어느 때고  
 ㉡ 바람은 어려 올 따름, 그 옆에 순순(順順)한 스러지는  
물방울의 찬란한 춘향이 마음이 아니었을래.

하루에 몇 번쯤 푸른 산 언덕들을 눈 아래 보았을까나.  
 그러면 그때마다 일렁여 오는 푸른 그리움에 어울려, 흐느  
 껴 물살 짓는 어깨가 얼마쯤 하였을까나. 진실로, 우리가  
 받들 산신령은 그 어디 있을까마는, 산과 언덕들의 만리  
 (萬里) 같은 물살을 굽어보는, 춘향은 바람에 어울린 수정  
 (水晶) 빛 임자가 아니었을까나.

- 박재삼, 「수정가」 -

(다)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리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 너였다가  
 [A]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 다시 문이 닫힌다

┌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B]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 황지우, 「너를 기다리는 동안」 -

정리

34.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이별의 동기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 ② 회상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현실을 초월하려는 종교적 신념이 드러나 있다.
  - ④ 서글프면서도 강렬한 설득적 어조가 드러나 있다.
  - ⑤ 사랑하는 대상과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3년 06월

(가)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물러가는 ㉡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탑 위의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구비구비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날을 곱게 단장하는 저녁놀은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 약한 등불입니까

- 한용운, 「알 수 없어요」-

(나)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사랑은,

호젓한 뚜뚱기 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뉘 놓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 있는 배

「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A] 매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을 떠 있다

- 장석남, 「배를 매며」-

(다)

동풍이 건뚫 불어 적설을 헤쳐 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 두 세 가지 피었어라. 가뜩 냉담한데 암향(暗香)은 무슨 일고. 황혼에 달이 쫓아 베개 밑에 비치니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임이신가 아니신가. 저 매화 꺾어 내어 임 계신 데 보내고져. 임이 너를 보고 어떻게 여기실꼬.

꽃 지고 새 잎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나위(羅幃) 적막하고 수막(繡幕)이 비어 있다. 부용(芙蓉)을 걷어 놓고 공작(孔雀)을 둘러 두니 가뜩 시름 많은데 날은 어찌 길던고. 원앙금(鴛鴦錦) 베어 놓고 오색선 풀어 내어 금자에 겨누어서 임의 옷 지어 내니 수품(手品)은 물론이고 제도(制度)도 갖출시고. 산호수 지게 위에 백옥함에 담아 두고 임에게 보내려고 임 계신 데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천리만리 길에 뉘라서 찾아갈꼬. 가거든 열어 두고 나인가 반기실까.

하룻밤 서리 기운에 기러기 울어 열 제 위루(危樓)에 혼자 올라 수정렴(水晶簾) 걷으니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보이니 임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청광(淸光)을 쥐어 내어 봉황루(鳳凰樓)에 부치고져. 누 위에 걸어 두고 팔황(八荒)에 다 비추어 심산궁곡(深山窮谷) 한낫같이 만드소서.

건곤이 얼어붙어 백설이 한 빛인 때 사람은 물론이고 나는 새도 그쳐 있다. 소상남반(蕭湘南畔)도 추위가 이렇거늘 옥루고쳐(玉樓高處)야 더욱 일러 무엇 하리. 양춘(陽春)을 부쳐 내어 임 계신 데 쏘이고져. 초가 처마 비친 해를 옥루에 올리고져. 홍상(紅裳)을 여며 입고 푸른 소매 반만 걸어 해 저문 대나무에 생각도 많고 많다. 짧은 해 쉬이 지고 긴 밤을 꼳꼳이 앉아 청등 걸어 둔 곁에 공후를 놓아 두고 꿈에나 임을 보려 턱 받치고 기대니 양금(鴛禽)\*도 차도 찰샤 이 밤은 언제 셀꼬.

- 정철, 「사미인곡」-

\* 양금 : 원앙을 수놓은 이불. 혹은 부부가 함께 덮는 이불.

정리	
----	--

4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화의 상대로 삼고 있다.
  - ② 대화체와 독백체를 교차하여 극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③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다채롭게 조성하고 있다.
  - ④ 소재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사하여 화자의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42. (가)와 (나)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구조가 유사한 문장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시상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② (나)는 화자의 시선이 자신의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이동하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③ (가)는 제5행에서, (나)는 제3연에서 시상의 흐름이 전환되고 있다.
  - ④ (가)와 (나) 모두 화자의 현재 상황을 자연 현상과 대비하며 시상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시상을 완결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얻어 내고 있다.

43.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알 수 없어요」를 비롯한 한용운의 시는 '절대자'라는 궁극적 존재를 탐구하는 시이다. 동시에 그것은 역설에 의한 구도자로서의 자기 정립 또는 자기 극복의 시이기도 하다. 「알 수 없어요」에서는 이런 점이 물음의 방식을 통해 강화되어 나타난다.

- ① ㉠ : '바람도 없는~오동잎'의 이미지와 결합되어, '누구'로 표현된 절대자의 존재 방식을 알려 주는군.
- ② ㉡ : '푸른 하늘'과 대조되는 것으로, 화자와 절대자 사이의 만남을 가로막는 번뇌와도 같은 것이군.
- ③ ㉢ :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절대자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회의적 태도를 드러내는군.
- ④ ㉣ :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와 짝을 이루어, 무한 공간에 걸쳐 있는 절대자의 면모를 드러내는군.
- ⑤ ㉤ : '타고 남은 ~ 됩니다'와 관련되면서, 구도자로서의 자기 정립에 대한 화자의 열망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군.

44. [A]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사랑을 갈구하는 화자의 행동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어.
  - ② 사랑의 덧없음을 인정하는 화자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어.
  - ③ 배를 매는 행위의 의미가 사랑임이 비로소 드러나고 있어.
  - ④ 사랑의 운명적 면모가 자연의 섭리를 통해 제시되고 있어.
  - ⑤ 사랑의 속성에 대한 화자의 심화된 인식이 나타나고 있어.

45. (나)의 '부뒸가'와 (다)의 '수막'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뒸가'는 이별과 만남이 반복되는 시련의 공간, '수막'은 이별 후에 정착한 도피의 공간이다.
  - ② '부뒸가'는 익명의 타인들과 어울리는 공동체적 공간, '수막'은 타인들로부터 은폐된 개인적 공간이다.
  - ③ '부뒸가'는 화자가 회귀하고자 하는 과거의 공간, '수막'은 화자가 벗어나고자 하는 현재의 공간이다.
  - ④ '부뒸가'는 사랑하는 대상이 화자를 기다리는 공간, '수막'은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을 기다리는 공간이다.
  - ⑤ '부뒸가'는 화자가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공간, '수막'은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를 확인하는 공간이다.

46.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남성 작가가 자신의 분신으로 여성 화자를 내세우는 방식은 우리 시가의 한 전통이다. 궁궐을 떠난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면서 지은 「사미인곡」도 이 전통을 잇고 있다.

- ① '옷'을 지어 '백옥함'에 담아 임에게 보내려 하는 것은 임금에 대한 신하의 정성과 그리움을 드러내는 행위이다.
- ② 지상의 화자가 천상의 '달'과 '별'을 매개로 임을 떠올린 것은 군신 사이의 수직적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청광'을 보내고자 염원하는 이유에서 시적 화자와 청자가 실제로는 신하와 임금의 관계임을 감지할 수 있다.
- ④ 추운 날씨에 '초가 처마'에 비친 해는 임금의 자애로운 은혜가 신하가 머물고 있는 곳까지 미치고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 ⑤ 긴긴 겨울밤을 배경으로 차가운 '양금'을 통해 외로운 처지를 표현한 것은 군신 관계를 남녀 관계로 치환한 결과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6년 10월 A형

앉은 곳에 해가 지고 누운 자리 밤을 새워  
 잠든 빛기 한숨이오 한숨 끝에 눈물일세  
**밤밤마다 꿈에 뵈니** 꿈을 돌너 상시과저<sup>1)</sup>  
 학발자안<sup>2)</sup> 못 뵈거든 안족서신<sup>3)</sup> 잣아짐에  
 기다린들 기별 올까 오노라면 달이 넘네  
 못 본 제는 기다리나 보게 되면 시원할까  
 노친 소식 나 모를 제 내 소식 노친 알까  
**산과 강물 막힌 길에 일반고사<sup>4)</sup> 뉘 헤울고**  
 묻노라 밝은 달아 두 곳에 비추는가  
 따르고저 뜨는 ㉠ 구름 남천(南天)으로 달는구나  
 흐르는 내가 되어 집 앞에 두르고저  
 나는 듯 새나 되어 창가에 가 노닐고저  
 내 마음 헤아리려 하니 노친 정사(情思) 일러 무삼  
**여의 잃은 용이오** 키 없는 배 아닌가  
 추풍의 낙엽같이 어드메 가 머무를꼬  
 제택도 파산하고 친속(親屬)은 분찬<sup>5)</sup>하니  
 도로에 방황한들 할 곳이 전혀 업네  
**어느 때에 주무시며 무엇을 잡숫는고**  
 일점의리<sup>6)</sup> 살피더니 어느 자손 대신할고  
**나 아니면 뉘 뵈시며** 자모(慈母) 빛기 날 뉘 필고  
 남의 업슨 모자 정리(母子情理) 수유상리<sup>7)</sup> 못하더니  
 조물(造物)을 뉘이건가 이대도록 떼쳐 온고

- 이광명, <복찬가>

- 1) 꿈을 돌너 상시과저: 꿈을 가져다 현실로 삼고 싶구나.
- 2) 학발자안: 머리가 하얗게 썬 자애로운 얼굴. 어머니를 가리킴.
- 3) 안족서신: 기러기 발목에 매달아 보낸 편지.
- 4) 일반고사: 괴롭거나 고통스러운 모든 생각.
- 5) 분찬: 바빠 달아나 숨음.
- 6) 일점의리: 한 벌의 옷과 한 켤레의 신발.
- 7) 수유상리: 잠간 동안 서로 헤어짐.

47.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물음의 방식을 통해 화자의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② 비유의 방법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전달하고 있다.
- ③ 유사한 구조의 시구끼리 짝을 지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④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사실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
- ⑤ 연쇄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48.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복찬가」는 역모 사건과 관련되어 귀양을 가게 된 작가의, 홀로 남겨진 노모에 대한 걱정과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작가는 유배지에서 어머니를 그리워하지만 갈 수 없기 때문에 절망과 한탄의 정서를 갖게 된다. 이런 점에서 「복찬가」는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충심을 노래한 다른 유배 가사들과는 구별된다.

- ① ‘밤밤마다 꿈에 뵈니’에는 어머니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그리움이 담겨 있군.
- ② ‘산과 강물 막힌 길에 일반고사 뉘 헤울고’에는 노모에게 소식을 전할 수 없는 화자의 절망감이 담겨 있군.
- ③ ‘여의 잃은 용’에는 충성스러운 신하를 귀양 보낸 임금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이 표현되어 있군.
- ④ ‘어느 때에 주무시며 무엇을 잡숫는고’에는 홀로 남겨진 노모에 대한 화자의 걱정이 드러나 있군.
- ⑤ ‘나 아니면 뉘 뵈시며’에는 노모에게 효를 다하지 못하는 화자의 안타까움이 나타나 있군.

정리	
----	--

49. 윗글의 ㉠과 <보기>의 ㉡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구름이 무심(無心)탄 말이 아마도 허랑(虛浪)하다  
중천(中天)에 떠 있어 임의로 다니면서  
구태야 광명한 날빛을 따라가며 달나니

- 이준오의 시조

- ① ㉠은 화자의 염려가 투영된 소재이고, ㉡는 화자의 소망이 의탁된 소재이다.
- ② ㉠은 화자가 부러워하는 대상이고, ㉡는 화자가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이다.
- ③ ㉠은 화자가 처한 불행한 현실을 드러내고, ㉡는 화자가 추구하는 세계를 드러낸다.
- ④ ㉠은 화자로 하여금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는 화자로 하여금 탈속적 세계를 떠올리게 한다.
- ⑤ ㉠은 화자에게 현실 극복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는 화자에게 현실에 대한 체념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2년 수능

(가)  
 차레를 지내고 돌아온  
 구두 밑바닥에  
 고향의 저문 강물 소리가 묻어 있다  
 ┌ 겨울 **보리** 파랗게 꽃힌 강둑에서  
 ┌ 살얼음만 몇 발자국 밟고 왔는데  
**[A]** ┌ 쭉꼰 상엿집 흰 눈 속을 넘을 때도  
 ┌ 골목 앞 보세점 흐린 불빛 아래서도  
 ┌ 찰랑찰랑 강물 소리가 들린다  
 ┌ 내 귀는 얼어  
**[B]** ┌ 한 소절도 듣지 못한 강물 소리를  
 ┌ 구두 혼자 어떻게 듣고 왔을까  
 ┌ 구두는 지금 황혼  
 ┌ 뒤축의 **꿈**이 몇 번 수습되고  
**[C]** ┌ 지난 가을 터진 가슴의 어둠 새로  
 ┌ 누군가의 살아 있는 오늘의 부끄러운 측수가  
 ┌ 싸리 유채 꽃잎처럼 꿈틀댄다  
**[D]** ┌ 고향 텃밭의 허름한 꽃과 어둠과  
 ┌ 구두는 초면 나는 구면  
 ┌ 건성으로 겨울을 보내고 돌아온 내게  
**[E]** ┌ 고향은 꽃잎 하나 바람 한 점 꾸러 주지 않고  
 ┌ 영하 속을 흔들리며 떠나는 내 낡은 구두가  
 ┌ 저문 고향의 **강물 소리**를 들려준다.  
 출렁출렁 아니 덜그럭덜그럭.  
 - 광재구, 「구두 한 켤레의 시」-

(나)  
 <1>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꽃 피는 사월이면 진달래 향기  
 밀 익는 오월이면 **보리** 내음새  
  
 어느 것 한 가진들 실어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좋데나  
  
 <2>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저 하늘 저 빛깔이 저리 고울까  
  
 금잔디 너른 별엔 호랑나비 때  
 버들밭 실개천엔 종달새 노래  
  
 어느 것 한 가진들 들려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좋데나  
  
 <3>  
 산 너머 남촌에는 배나무 있고  
 배나무꽃 아래엔 누가 섰다기,

그리운 생각에 영(嶺)\*에 오르니  
 구름에 가리어 아니 보이니  
  
 끊었다 이어 오는 가는 **노래**  
 바람을 타고서 고이 들리데  
 - 김동환, 「산 너머 남촌에는」-  
 \* 영 : 고개.  
  
 (다)  
 앓은 곳에 ㉠ **해**가 지고 누운 자리 밤을 새워  
 잠든 빛기 한숨이오 한숨 끝에 눈물일세  
 밤밤마다 꿈에 뵈니 꿈을 돌너 상시(常時)과져\*  
 학발자안(鶴髮慈顏)\* 못 뵈거든 안죽서신(雁足書信)\* 갖  
 아짐에  
 기다린들 기별 올까 오노라면 ㉡ **달**이 넘네  
 못 본 제는 기다리나 보게 되면 시원할까  
 노친(老親) 소식 나 모를 제 내 소식 노친 알까  
 ㉢ **산**과 강물 막힌 길에 일반고사(一般苦思)\* 뉘 헤울고  
 묻노라 밝은 달아 두 곳에 비추는가  
 따르고저 뜨는 구름 남천(南天)으로 닫는구나  
 흐르는 ㉣ **내**가 되어 집 앞에 두르고저  
 나는 듯 ㉤ **새**나 되어 창가에 가 노닐고저  
 내 마음 헤아리려 하니 노친 정사(情思) 일러 무삼  
 여의(如意) 잃은 용이오 키 없는 배 아닌가  
 추풍의 낙엽같이 어드메 가 머무름꼬  
 - 이광명, 「북찬가(北竄歌)」-  
 \* 꿈을 돌너 상시과져 : 꿈을 가져다 현실로 삼고 싶구나.  
 \* 학발자안 : 머리가 하얗게 쉰 자애로운 얼굴. 어머니를 가리킴.  
 \* 안죽서신 : 기러기 발목에 매달아 보낸 편지.  
 \* 일반고사 : 괴롭거나 고통스러운 모든 생각.

정리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06년 3월

(가)  
어느 먼 곳의 그리운 소식이기에  
이 한밤 소리 없이 훑날리느뇨

처마 끝에 호롱불 여위어 가며  
서글픈 옛 자친 양 흰 눈이 내려

하이얀 입김 절로 가슴이 메어  
㉠ 마음 허공에 등불을 켜고  
내 홀로 밤 깊어 뜰에 내리면

㉡ 먼 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

희미한 눈발  
이는 어느 잃어진 추억의 조각이기에  
싸늘한 추회(追悔) 이리 가쁘게 설레느뇨

㉢ 한줄기 빛도 향기도 없이

홀로 차단한 의상을 하고  
흰 눈은 내려 내려서 쌓여  
내 슬픔 그 위에 고이 서리다

- 김광균, <설야>

(나) 어이할까나  
아- 나는 사랑을 가졌어라  
남몰래 혼자서 사랑을 가졌어라!

천지엔 이제 꽃잎이 지고  
새로운 녹음이 다시 돌아나  
또 한번 나-르 에워싸는데

㉣ 못 견디게 서러운 몸짓을 하며

붉은 꽃잎은 떨어져나려  
펄펄펄 펄펄펄 떨어져나려

신라가시내의 숨결과 같은  
신라가시내의 머리털 같은  
풀밭에 바람 속에 떨어져나려

올해도 내 앞에 훑날리는데  
부르르 떨며 훑날리는데.....

아- 나는 사랑을 가졌어라  
㉤ 피꼬리처럼 울지도 못할  
기찬 사랑을 혼자서 가졌어라

- 서정주, <신록>

(다)  
㉥ 正月(정월)스 나릿뜨른 아으 어져 녹져 호논디  
누릿 가운데 나곤 몸하 호을로 널셔  
아으 動動다리

二月(이월)스 보로매 아으 노피 현 燈(등)스블 다호라  
㉦ 萬人(만인) 비취실 즈시샷다  
아으 動動다리

三月(삼월) 나며 開(개)흔 아으 滿春(만춘) 들윗고지여  
늑딕 브롤 즈슬 디너 나샷다  
아으 動動다리

㉧ 四月(사월) 아니 니저 아으 오실셔 꽃고리새여  
프슴다 錄事(녹사)니론 냇 나를 닛고신더  
아으 動動다리

- 작자 미상, <동동>

정리

56.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외적 상황을 묘사한 다음 화자의 감정을 제시하고 있다.
- ② (가)와 (다)에는 시간 경과에 따른 상황의 변화가 나타나 있다.
- ③ (나)와 (다)는 자연의 순환적 질서가 시상의 바탕에 깔려 있다.
- ④ (가), (나), (다) 모두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가), (나), (다) 모두 어조의 전환을 통해 화자의 심리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57. <보기>를 참고하여 ㉠의 의미를 탐색한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세상의 여러 사물 중에서 불꽃은 몽상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영상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지속되는 불꽃 앞에서는 깊이 잠들기 어려우며, 몽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과거의 추억을 되살려 준다.

- ① 몽상이 지니는 심리적 특성을 참고한다면, 마음 허공에 켜진 등불은 시적 화자의 심리적 갈등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 ② 불꽃을 지속시키는 시간적 흐름의 맥락에서 볼 때, 화자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등불은 연속되는 삶의 흐름과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 ③ 빛을 비추기 위해 거리를 두어야 하는 불꽃의 특성을 참고한다면, 마음에 켜진 등불로 인해 시적 화자의 고립감이 강조된다고 볼 수 있다.
- ④ 불꽃이 인간 본래의 모습을 상징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등불을 켜므로써 시적 화자는 인간의 존재적 한계를 깨닫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불꽃이 지니는 몽상적 이미지를 고려해 볼 때, 마음에 등불을 켜는 행위는 시적 화자가 내면으로 깊이 침잠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58. (나)의 표현상 특징과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문형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영탄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감정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의태어의 반복 사용을 통해 시적 생동감을 살리고 있다.
- ④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인상을 선명하게 하고 있다.
- ⑤ 시구의 반복과 변주(變奏)를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59. (다)의 ㉡과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강이 풀리면 배가 오겠지  
배가 오면은 님도 탕겠지

님은 안 타도 편지야 탕겠지  
오늘도 강가서 기다리다 가노라

님이 오시면 이 설움도 풀리지  
동지 선달에 얼었던 강물도

제멋에 녹는데 왜 아니 풀릴까  
오늘도 강가서 기다리다 가노라

- 김동환, <강이 풀리면>

- ① ㉡과 <보기> 모두 임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바탕에 깔려 있다.
- ② ㉡과 <보기> 모두 강물이 얼었다 풀리는 상황과 시적 화자의 처지를 대비하고 있다.
- ③ ㉡에는 <보기>와 달리 대립된 욕망으로 인한 시적 화자의 고뇌가 나타나 있다.
- ④ ㉡과 달리 <보기>에는 임을 향한 시적 화자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 ⑤ ㉡과 달리 <보기>에서는 연쇄적 시상 전개를 통해 시적 화자의 심정이 강조되고 있다.

60.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 대상의 이미지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 : 대립되는 시어를 병치하고 있다.
- ③ ㉢ : 시적 화자의 감정이 투영되어 있다.
- ④ ㉣ : 비교를 통해 시적 화자의 정서를 구체화하고 있다.
- ⑤ ㉤ : 대상에 대한 시적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61. ㉠을 활용하여 시를 창작해 보았다. <보기>의 조건을 가장 잘 충족시킨 것은?

<보기>

- ㉠의 시적 화자의 상황과 정서를 살린다.
- ㉠의 '곳고리새'와 시적 기능이 유사한 시어를 포함시킨다.
-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의미를 강조한다.

- ① 작년 오늘 이 문 안에서  
그대와 복사꽃이 서로 붉게 빛났지  
복사꽃은 여전히 봄바람에 미소 짓는데  
그대 간 곳은 알 수 없구나
- ② 내 살던 곳은 서쪽에서 또 서쪽  
해마다 앵무새 울었네  
지금은 앵무새 우는 곳에 살지 않지만  
앵무새는 여전히 그곳에서 우네
- ③ 연못에는 난초 향기 가득한데  
껌은들 누구에게 보내나  
마음은 간절한데 알아주는 이 없어  
슬픔 속에 늙어가는구나
- ④ 약속을 해놓고 님은 어찌 안 오시나  
뜨락의 매화꽃은 다 저 가는데  
갑자기 가지 위의 까치소리 듣고는  
부질없이 거울 앞에 눈썹 그리네
- ⑤ 지금 사람은 옛 달을 볼 수 없지만  
오늘 이 달은 옛사람들을 비추었지  
옛사람과 지금 사람이 흐르는 강물처럼  
이렇게 함께 달을 보고 있네

# 답지

- 1) ㉠ ㉡ [세부 내용 파악] (가)의 3문단 '이처럼 민간 가요의 궁중 악곡으로의 전환은 하층에서 상층으로의 편입 흡수 과정을 통해 상 하층이 노래를 함께 향유한 화합의 차원으로 볼 수 있다.'에서 하층 노래가 상층 노래에 영향을 준 것임을 알 수 있다. ㉢ (가)의 1문단 '고려 속요는 고려 시대 궁중에서 형성되어 조선 시대까지 궁중 연향에서 전승되어 불린 노래'에서 알 수 있다. ㉣ (가)의 2문단 "풍'에 실린 노래는 중국은 물론 고려와 조선의 궁중 잔치에서도 불렸다. 또한 조선의 궁중악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연향 악곡을 선정'에서 알 수 있다. ㉤ (가)의 2문단 "풍'에는 민간의 노래가 실려 있는데 사랑 노래가 대부분'이라는 부분과 3문단 '이때 그 과정에서 민중의 생활상을 진솔하게 반영한 노래 가운데 인류의 차원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노래들은 통치 질서를 구현하기에 적합한 노래로 여겨져 궁중악으로 편입'이라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 (가)의 3문단 '인류의 차원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노래들은 통치 질서를 구현하기에 적합한 노래로 여겨져와, '남녀 간의 사랑 노래는 그 화자와 대상이 신하와 임금의 구도로 치환되기 용이했기 때문에 궁중악으로 편입될 수 있었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 2) ㉠ ㉡ [작품의 종합적 이해] (나)의 <서사>에서 '아으 동동다리'는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후렴구로 볼 수 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궁중 연향을 고려하여 덧붙인 내용으로 임에 대한 송축(경사를 기리고 축하함)을 노래하고 있으므로 ㉢의 예로 볼 수 있다. ㉣ (나)의 '아으 동동다리'는 <서사>, <정월령>, <이월령>, <삼월령> 등에 반복되는 형식적 장치로,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후렴구이다. 그러므로 ㉤의 예로 볼 수 있다. ㉥ (나)의 <서사>에서 '아으 동동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임에 대한 송축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의 예로 볼 수 없다. ㉧ (다)의 '위 증증가 대평성다'는 후렴구로 노래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의 예로 볼 수 있다. ㉩ (다)의 제1연에서 '위 증증가 대평성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별의 상황과 관련이 있으므로 ㉪의 예로 볼 수 없다.
- 3) ㉠ ㉡ [감상의 적절성 평가] [A]의 제1행과 제2행은 물수리 한 쌍이 모래톱에서 우는 정경을 제시한 것으로 시적 대상이 변화한 것이 아니며 대칭 구조로 볼 수도 없다. (다)의 제1연과 제2연도 시적 화자가 떠나는 임에 대해 하소연하는 내용으로 시적 대상의 변화에 따른 대칭 구조를 찾을 수 없다. ㉢ (가)의 4문단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화로움을 노래한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를 통해 [A]에서 자연과 인간 간의 조화로움이 드러난 것을 알 수 있다. (나)의 <정월령>은 정월의 넷째 날과 비교하여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처지를 노래하고 있으므로, 남녀 간의 사랑으로 인한 외로움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 [A]의 '물수리 한 쌍'은 조화로움과 관련된, (나)의 '만춘 들꽃'은 타인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움과 관련된 긍정적 가치를 지닌 대상으로 볼 수 있다. ㉤ [A]에서는 짝을 지은 물수리 암수의 모습과 앞으로 짝을 지을 요조숙녀와 군자의 모습을 통해 화평하고 즐거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다)에서는 임과 시적 화자 간의 이별의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 (가)의 4문단에서 [A]를 두고 '부부 간의 화락과 공경', '풍속 교화의 시초'라는 평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으므로 [A]가 풍속을 교화할 만한 이상적인 사랑을 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의 <이월령>에서 '높이 켜 등불'에 빛대어 임이 모두가 우러러 볼만한 '덕'을 지녔음을 읊고 있으며, (다)에서는 이별의 상황에서 임에 대한 간절한 연모의 정을 읊고 있다.
- 4) ㉠ ㉡ [정범T해설] 이러한 선택지는 읽고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시 속에서 상황은 기본적으로 앞부분에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상황에 대한 반응 또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쉽게 정답으로 갈 수 있는 선택지다. (75%의 선택)**  
 [오답 풀이] ㉢ 인간과 자연 대비는 모두 드러나지 않았다. (다)에서 누이의 죽음과 자연 현상을 연결시켰지만 대비되지 않는다. (15%의 선택) ㉣ (다)시에서 '미타찰에서 만날 나 도 닦아 기다리겠노라'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낙관을 찾을 수 있다. (가)~(나)에는 보이지 않는다. ㉤ 세 작품 모두 확신은 드러나지 않았다. ㉥ (나)에서는 '풀 한 포기 없는 길'을 통해

서 부정적 현실에 대한 우회적 비판(=직접 드러나지 않은)을 엿볼 수 있으나 (가)와 (다)에는 드러나지 않았다.

- 5) ㉠ ㉡ [정범T해설] 역설이란 표현상 모순이 보이거나 속에는 진실이 담겨있는 말을 뜻한다. [A]와 [B]에는 시간의 흐름이 드러날 뿐 역설은 보이지 않는다.  
 [오답 풀이] ㉢ '시간'이라는 대상을 감각적 표현(시각, 청각, 후각 등)으로 표현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다. (가)에서 세상은 희게, 번쩍이며 오는 아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같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를 통해 지속 및 계속됨을 알 수 있다. ㉤ '같'이라는 공간과 '아침'이라는 시간을 결합하여 표현하였다. ㉥ 고뇌는 내적 갈등 즉 머릿속이 복잡함으로 이해하면 좋다. [A]에서는 '그대'의 부재를 통해서 [B]에서는 잃어버린 '담' 저쪽의 '나'를 통해서 시간이 고뇌의 순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6) ㉠ ㉡ [정범T해설] '하늘'은 화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대상이고, '미타찰'은 누이와 만나길 지향하는 공간이므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 (나)는 '하늘'을 쳐다보는 행위를 통해서, (다)는 '미타찰'에서 만날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화자가 그곳에 몸 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여휘를 반드시 파악하자. '송고함'은 화자가 지향하는 바를 나타낼 때, '비장함'은 화자의 좌절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다. (다)의 '미타찰'은 화자가 누이와 만나는 공간이므로 비장함과 거리가 멀다. ㉤ 모두 환상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 '하늘'의 영원성은 지문에서 읽을 수 없다. 또한 '미타찰'은 누이와 만나는 공간이며 오히려 누이가 없는 '현실'이 인간의 유한성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 7) ㉠ ㉡ [정범T해설] '탈속'이라는 어휘는 매우 중요하다. 접사 '탈'은 '그것을 벗어남'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화자가 집을 '메기숲'과 '바다의 물가' 뒤에 짓는다는 것을 통해서 탈속으로 생각한 친구들이 있었으나, '나의 집을 다시금 큰 길을 앞에만 두고'를 통해 탈속이 아님을 알 수 있다. (55%의 선택)  
 [오답 풀이] ㉢ ㉣의 앞행에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를 통해 내면적 방향을 알 수 있다. ㉤ 아래 연에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긴 그림자를 드리운다'고 연관지어 해석할 때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없는 화자의 무거운 심리를 엿볼 수 있다. ㉥ '황량하다'는 거칠고 쓸쓸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에서 길의 황량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 ㉧의 앞행을 보면 '생사의 길은 여기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생사에 대한 문제 의식이 '머뭇거리고'에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 8) ㉠ ㉡ [정범T해설] 방언은 사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향토적, 토속적 정감도 유발하지 않는다. (70%의 선택)  
 [오답 풀이] ㉢ 3행과 12행에서 도치를 엿볼 수 있다. 도치를 잘 찾으려면 서술어 중심으로 읽는 훈련이 잘 되어야 한다. 쉼표(,)를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 '하얀'을 '하이얀' 그리고 '그대인가 하고'를 '그대인가고'로 음절 수를 조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흔히 시적 허용이라고 하는데, 음절 수(글자 수)를 조절하는 것도 시적 허용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자.** ㉤ 시에서 반복을 물어볼 때는 먼저 무엇을 반복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시어 반복이라고 했으므로 '그대인가고'가 반복되고 있음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반복되는 것이 동일한 것인지, 유사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있는 그대로 반복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시어 반복이라고 할 수 있다. ㉥ '하이얀', '희게' 따위를 통해서 흰색 색채어를 읽을 수 있다.
- 9) ㉠ ㉡ [정범T해설] ㉢의 '바람'은 누이의 죽음을 일으킨 원인이다. 따라서 화자의 시련으로 읽을 수 있다. 반면 A의 바람은 '도화를 떨어뜨리게 하지만' 떨어진 꽃 또한 도화라고 이야기했으므로 '바람'을 시련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 두 바람 모두 '잎'과 '나무'를 떨어뜨리고 쓰러지게 하는 원인이 된다. ㉤ '잎'은 '바람'에 의해 떨어진 죽은 누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화자의 흥취를 찾을 수 없다. 하지만 '도화는' 꽃을 통해서 풍류를 즐기고 있으므로 흥취를 즐긴다고 할 수 있다. ㉥ ㉦는 죽은 누이를, B에서 '나무'는 임을 그리워 하는 화자로 비유되고 있다. ㉧ ㉨, A의 '도화', B

- 의 '나무'는 모두 바람에 의해 떨어지고 쓰러진 것으로 수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 10) ㉠ [작품을 종합적으로 감상할 수 있다] [가]의 화자는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면서, 임께서 다시금 자신을 불러 사랑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하소연하고 있다. [나]의 화자는 임과 이별한 상황에서 '천 리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한다고 하였는데, '외로운 꿈'이란 임에 대한 그리움을 의미한다. 따라서, [나]의 화자 역시 임과의 재회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다. [다]의 화자는 임을 그리워한 나머지 꿈 속에서 임을 만날 정도이므로 [다]의 화자 역시 임과의 재회를 소망한다고 볼 수 있다. ㉡ ① [가],[나] 모두 대조적 이미지와 무관하다. [나]의 '이화우', '추풍 낙엽'은 하강의 이미지를 지닌 시어들이다. ③ [나]에는 '이화우와 '추풍 낙엽'을 통해 늦봄과 가을이라는 계절감이 드러나고 있지만, [다]에는 계절감이 드러나 있지 않다.
- 11) ㉠ ④ [시적 화자의 태도를 파악할 수 있다] [가]의 화자는 자신에게는 과실도 허물도 전혀 없으며, 뭇 사람들의 모함에 의해 임께 버림받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기>의 화자는 떠나는 임을 붙잡지 않고 보내놓고는 그 임을 그리워하는 자신을 책망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려는 [가]의 화자에게 [나]의 화자가 들려 줄 말로는 자신에게 잘못이 없는지를 반성해 보라는 정도의 내용이 될 것이다.
- 12) ㉡ ② [시적 화자의 심리를 파악하고 적용할 수 있다] <보기>에 의하면 '날 생각난가'에는 기대와 의구심이라는 이중 심리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였다. ②는 '임께서 나를 벌써 잊으셨나이까?'라는 뜻인데, 여기에는 '아직 잊지 않았을 거야'라는 기대감과 '이미 잊었을지도 몰라'라는 의구심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 ① '과실도 허물도 전혀 없습니다.'라는 뜻으로 자신의 결백을 강조한 말이다. ③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심정을 표현한 것이다. ④ '지척을 모르겠는데 천 리를 어찌 바라볼 수 있겠는가?'라는 뜻으로 임 계신 곳을 볼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낸 것이다. ⑤ '벽에 걸린 등불은 누구를 위하여 밝혀 놓은 것인가?'라는 뜻으로 임의 부재로 인한 허전한 심정을 표현한 것이다.
- 13) ㉠ ④ [문맥에 적합한 시구를 파악할 수 있다] 화자는 임의 소식을 알고자 높은 산에 올라갔으나 구름과 안개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강가로 내려와 뱃길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물결이 거세게 이는 데다가 사공마저 보이지 않아 역시 뜻을 이루지 못한다. 따라서, ㉡에 적합한 내용은 임의 소식을 더욱 알기 어렵다는 내용이 와야 할 것이다. ㉠ ① (시냇물이) 넓거든 길지나 말고, 푸르거든 희지나 말 것이지.(면양정가) ② 듣거니 보거니 하는 가운데 느낄 일이 많기도 하구나.(사미인곡) ③ 오르지 못하거니 내려가는 것이 어찌 이상할까.(관동별곡) ⑤ 무릉도원이 가깝도다, 저 들녘이 바로 그것인가.(상춘곡)
- 14) ㉠ ⑤ [유사한 성격을 지닌 대상을 파악할 수 있다] <보기>의 '개'는 미운 임이 오면 반겨하고 고운 임이 오면 짖어서 돌아가게 하므로 화자와 임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며, 화자에게 미움과 원망의 대상이 된다. ⑤의 '계성(鷄聲)'은 화자의 잠을 깨워 화자와 임이 만나는 것을 방해한 장애물이므로 역시 미움과 원망의 대상이 된다. ㉡ ① '접동새'는 화자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다. ② '잔월 효성(새벽달과 새벽별)'은 화자의 결백함을 알아주는 천지신명과 같은 대상이다. ③ '이화우'는 배꽃이 비처럼 흠날리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슬픔의 이미지를 지닌 대상이다. ④ '일월'은 화자가 보고 싶어하는 대상이므로 '임'을 비유한 것이다
- 15) ㉠ ④ [해설] (가)의 화자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한편 임을 그리워하고 있다. (나)의 화자는 무관심한 남편의 태도를 원망하면서도 임의 모습을 그리워하고 있다. (다)의 화자는 임에게 말을 하지 못하고 헤어져 안타까워하고 있다. (가)의 화자는 자신의 처지를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4). / ⑤ (나)에는 경물이 시름없다고 표현되어 있고, (다)에는 배꽃을 비추는 달이 화자의 슬픈 정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 16) ㉠ ⑤ [해설] (가)의 '잔월'은 화자의 결백을 믿어 줄 절대적 존재이고, (다)의 '달'은 화자의 슬픔을 더욱 심화시키는 존재이다(5). / ③ (나)의 달에는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정서가 반영되어 있는데 비하여 (가)의 달에는 임의 이미지와 관련이 없다.
- 17) ㉠ ④ [해설] (가)의 시에는 임금이 화자를 다시 불러 줄 것이라고 약속했다는 내용이 드러나 있지 않다.
- 18) ㉠ ② [해설] 전제된 구절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뒤에 이어지는 구절도 당연히 부정적인 것을 찾아야 한다. 즉, '~인데/이므로 ~하랴'의 논법으로 된 발상과 표현을 찾아야 한다. 원근을 모르니 당연히 소식을 알 수 없는 것과 곡식이 풍요로워야 할 가을에도 먹을 것이 부족한데 봄에는 오죽하겠느냐하는 표현은 서로 유사하다.
- 19) ㉠ ② [해설] 앞의 시행과 연결하여 생각해 보면, 인연이 끊어진 것 같지만 나는 임 생각이 계속 떠오르고 있다고 했으므로 임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리움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하여야 자연스러운 연결이 된다(2). / ① 누리 가운데 태어난 몸은 혼자 살아가는구나(동동), ② 임의 소식은 더욱 아득하구나(속미인곡), ③ 시집살이 노래, ④ 속세를 떠나와도 내 몸이 한가롭지 못하다.(면양정가)
- 20) ㉠ ④
- 21) ㉠ ⑤
- 22) ㉠ ①
- 23) ㉠ ⑤
- 24) ㉠ ④
- 25) ㉠ ④ [해설] 이별의 상황을 각각 (가)는 '대동강 물', (나)는 '청산과 녹수', (다)는 '쇼상 남반과 옥누 고쳐'라는 공간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26) ㉠ ⑤ [해설] '이별의 눈물이 더하기 때문에 대동강물이 마를 날이 없다.'는 과장된 표현으로 이별의 정한을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의 무상함이 아니라 이별의 슬픔으로 인해 흘리는 눈물이 푸른 물결과 대응하고 있다.
- 27) ㉠ ⑤ [해설] (나)시에서 '녹수는 흘러가는 것 변하는 것의 의미를 담고 있다. '청산'은 탈속적 이미지가 아니라, '녹수'처럼 흘러가는 임의 정에 대해 변하지 않는 시적 화자의 정을 상징한다.
- 28) ㉠ ② [해설] <보기>의 시조에서 시적 화자는 '밤'이라는 대상을 마치 자신의 생각에 따라 늘이고 줄일 수 있는 것처럼 주관적으로 변용하고 있다. (다)에서 '양춘(陽春)' 또한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양 주관적으로 변용하여 임에게 쓰이고 싶다고 표현함으로써 임에 대한 애뜻한 사랑을 보여 주고 있다.
- 29) ㉠ ② [해설] (가)의 화자는 밤길을 가고 있을 임이 안전하기를 달에게 기원하고 있다. 이것은 화자와 임이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의 화자는 지금 철령에 있고 임은 구중궁궐에 있다. 역시 화자는 현재 임과 떨어져 있다. (다)의 화자 역시 임과 떨어져서 임을 염려하거나 그리워한다. 그러므로 세 작품의 공통점은 화자와 임 사이에 공간적 거리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 30) ㉠ ③ [해설] (가)에서 화자가 달이 높이 돌아 멀리 비추기를 기원하는 것은 임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에서 '양춘' 곧 따뜻한 햇볕을 임이 계신 곳에 보내고 싶어하는 것도 바로 임이 추울 것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 31) ㉠ ② [해설] '구름'은 화자의 마음을 멀리 떨어져 있는 임에게 전달해주는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소재이다. (다)에서 '매화'도 화자의 마음을 멀리 떨어진 임에게 전달해 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 32) ⑤ [해설] '편작이 열히 오나 이 병을 엇디흐리'는 편작처럼 아무리 훌륭한 의사가 오더라도 임금을 잊지 못해 애태우는 자신의 병을 치료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편작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다.
- 33) ⑤ [해설] (다)의 화자는 죽어서 호랑나비가 되어서라도 임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죽음을 초월하여 임을 사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처럼 죽음을 초월한 사랑을 노래한 것은 서정주의 '춘향 유문'이다. 이 시에서 화자는 멀고 먼 저승이라도 임을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이 미치지 못할 만큼 먼 곳은 아니라는 생각을 담고 있다.
- 34) ⑤ [해설] [가]에서 화자는 겨울과 봄을 맞이하여 자신의 정성이 담긴 '매화, 옷'을 보내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화자는 사랑하는 대상을 직접 만나지 못하기에 이렇게라도 임에게 자신의 마음을 보이려 하는 것이다. [나]의 1연에서 춘향이는 정화수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임을 기다리며, 2연에서는 푸른 산, 언덕들을 바라보며 바람같이 떠나간 임을 기다리며 그리움에 잠겨 있다. [다]의 화자는 너를 너무나도 절실히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너는 쉽게 오지 않기에 결국 화자는 너에게 가기로 했다. 세 작품 모두에서 사랑하는 대상과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 35) ③ [해설] <보기>에서 시적 화자는 멀리서 임금이 있는 궁궐을 그리워하며 빨리 돌아가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다. 하지만 궁궐로 돌아가지 못하는 화자의 슬픔은 두견새의 울음이나 대나무의 찢어짐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이러한 화자의 시름이 머리털이 하얗게 되는 것으로 표현된 것이다. 그러므로 ㉠에서 시름 많은 화자의 모습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 눈 속에 매화가 두세 가지 피어났다는 것이다. 이 매화는 화자의 마음을 담아내는 소재이다. ㉢ 달이 베개 근처에 비치는 것으로 화자는 달을 임으로 인식하고 있다. ㉣ 금자로 재어서라는 뜻으로 임의 옷을 지어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 36) ⑤ [해설] 시적 화자는 봄이 오자 '가득이나 냉담'한 현실이 극복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즉, 동풍이 불어 쌓인 눈을 헤쳐 낸 것처럼 자신에게도 봄이 찾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는 매화 가지를 꺾어 임에게 보냄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한다. 여름이 되자 '새 잎이 나고 녹음'이 우거진 것을 보며 화자는 또한 기대감을 가진다. 비록 지금의 현실은 나위가 적막하고 수막이 비어 있어 임의 부재를 느끼고 있지만, 화자는 임의 옷을 지어 보냄으로써 이러한 외로움을 극복해 내고자 한다.
- 37) ⑤ [해설] [나]의 1연에서는 '정화수, 우물집, 청정한' 등 깨끗한 물의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는데, 이는 임을 기다리는 춘향이의 순수한 사랑을 물의 이미지로 표현한 것이다. ㉠에서 말하는 '바람'은 바람같이 떠나간 임을 의미하는 것이며, 비록 임은 바람같이 떠나갔지만, 바람은 어련히 울 따름이라 하여 재회에 대한 믿음을 담아내고 있다.
- 38) ① [해설] <보기>에는 4.4조, 4음보의 율격이 정확히 지켜지고 있다. 또한 '갈까 부다, 쉬어 넘는, 어쩔거나' 등의 반복, 그리고 '바람도 쉬어 넘고~다 쉬어 넘는' 등의 관용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임을 보고 싶고 임을 따라 가고 싶은 화자의 마음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반면에 [나]에서는 임에 대한 그리움은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으면서도 이를 물의 이미지로 살짝 감추어 놓음으로써 감정 표현의 절제가 이루어졌다. 물론 '~엿을레, ~을까나'의 반복으로 율격이 드러나긴 하지만 <보기>에 비해 강화된 것은 아니다.
- 39) ③ [해설] [나]의 1연에서는 '정화수, 물방울, 물냄새 창창한'의 물의 연속적인 이미지들의 변형과 '~엿을레'의 반복을 통해, [다]에서는 '오다, 가다,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 등을 중심으로 한 변형과 반복을 통해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 ㉣ [가]는 춘향전의 내용을 차용하여 시적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40) ③ [해설] B에 비추어 A를 평가한다고 했다. 이는 B에 드러난 근거를

- 통해 A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라는 것이다. 시적 화자는 A를 기준으로 볼 때, A이전에는 너를 기다리며 마음을 즐기고 있다. 즉, 수동적으로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A 이후에는 너를 기다리며 너에게 다가가고 있다. 즉, 화자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너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A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아무리 기다려도 너가 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화자는 자신의 태도를 바꾸게 된 것이다.
- 41) ④ [해설] (가)에는 오동잎, 푸른 하늘, 알 수 없는 향기, 작은 시내, 저녁놀 등의 다양한 소재가 등장하는데 이 소재들은 모두 절대자의 모습을 느끼게 하는 자연의 신비로운 모습을 뜻한다. (나)에서는 배와 그 배가 던지는 밧줄, 이 밧줄을 받아 배를 매는 행위 등이 사랑을 키우는 과정 및 사랑의 속성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다)에서는 매화, 옷, 청광, 양춘 등이 임금에 대한 화자의 변함없는 마음과 그리움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가), (나), (다)는 공통적으로 소재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42) ① [해설] (가)의 가장 큰 표현상의 특징은 유사한 문장이 반복적으로 제시되어 시상의 통일성을 부여하는 데에 있다. 이런 표현은 다양한 자연현상 어디서나 절대자의 존재를 느끼게 한다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43) ③ [해설] <보기>에서 한용운의 시를 '절대자'의 존재를 탐구하며 구도자로서 자기를 정립, 극복하는 시라고 했으므로, 이런 관점에서 해당 시 구절을 이해하도록 한다. ㉢의 ㉠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로 마무리되며 절대자의 숨결로 느껴지고 있으므로, '절대자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회의적인 태도'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 44) ⑤ [해설] [A]에서 '배를 매면' 구름, 빛 시간이 함께 매어진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고 고백하고,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알았다고 표현하였다. 이것은 사랑의 속성에 대한 시적 화자의 심화된 인식을 표현한 것이다. 즉 사랑이란 내 주변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보게 됨을 의미한다.
- 45) ⑤ [해설] (나)의 '부듯가와 (다)의 '수막'을 비교하여 그 뜻을 확인하는 문제이다. (나)의 '부듯가'는 배가 들어오고 그 줄이 매이는 곳으로, 이 시에서 이 과정을 통해 화자는 사랑의 속성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다. (다)의 '수막'은 적막하고 비어 있어, 님이 떠나고 난 뒤 부재를 실감하게 되는 공간이다.
- 46) ④ [해설] <보기>의 내용으로 보아 (다)의 내용 및 주요 소재의 의미를 신하의 연군지정의 맥락에서 파악하여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추운 날씨에 '초가 처마에 비친 해는 임에게 드리고 싶은 화자의 마음과 그리움이지, 임금의 은혜로 보기는 어렵다.
- 47) ㉡ ㉣ [작품의 표현상 특징을 파악한다.] 지문에서 의성어나 의태어를 사용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 ㉢ '잠든 밧기 한숨이오 한숨 끝에 눈물일세' 등에서 연쇄법을 확인할 수 있다.
- 48) ㉡ ㉢ [외적 준거를 통해 작품을 이해한다.] '여의 잃은 용'은 화자의 처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임금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 ㉣ 어머니의 일상을 걱정하고 있는 화자의 심정이 드러난다.
- 49) ㉡ ㉢ [다른 작품과 비교하여 감상한다.] 이 글의 화자는 어머니가 계신 남쪽으로 흘러가는 ㉠을 부러워하고 있고, <보기>의 화자는 ㉡를 '허랑'한 존재, '날빛을 따라가며 뒹'는 존재라고 노래하며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50) ㉡ ㉢ [해설] 이 문제는 세 개 작품에 대한 각각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각각의 작품에 드러나는 속성을 파악하고 거기에서 도출할 수 있는 공통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하려는 문제 유형이다. (가)에서는 고향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보는 내용의 작품인데, 구두라는 중심 소재부터 고향의 풍경을 떠올릴 때 떠오르는 여러 가지 제재들까지

대부분 친숙한 사물들이 활용되고 있다. (나)도 한가로운 시골의 일상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진달래, 보리, 실개천 등 여러 제재들을 활용하고 있고, (다) 또한 달이라는 전통적이고 친숙한 소재를 활용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세 작품은 모두 친숙한 사물을 활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친숙한 사물들을 활용하여 (가)에서는 고향을, (나)에서는 남촌을, (다)에서는 어머니가 계신 곳에 대한 화자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세 작품의 공통점은 친숙한 사물을 통해 화자의 마음이 향하는 공간을 환기하고 있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51) ㉠ ③ [해설] (가)에서 화자는 고향에 다녀온 뒤 고향의 찰랑거리는 '강물 소리'를 떠올리고 있다. 이 '강물 소리'는 현재 화자가 있는 곳과 화자의 고향을 심리적으로 매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화자는 고향에 대한 애뜻한 정서를 강물 소리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강물 소리'는 고향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인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나)에서 '노래'는 화자가 듣고 있는 것으로, 들릴 듯 말 듯 희미하게 들려오는 사랑의 노래를 의미한다. 이는 남촌에 있는 임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것으로, '고이'라는 표현이 '조용히, 편안히'라는 의미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임과 남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 52) ㉠ ④ [해설] (나)는 남촌이라는 이상 세계를 설정하고 그곳에 대한 그리움을 일상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 내용이다. (나)의 1연과 2연에서는 새로운 소재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나 유사한 어조를 유지하고 있다. 3연에 이르러서야 다소 어조가 달라지고 부분이 나올 뿐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소재가 추가될 때마다 어조에 변화를 준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53) ㉠ ⑤ [해설] <보기>는 하이데거의 철학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작품을 감상하는 준거를 제시해주고 있다. 이는 <보기>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지 평가하려는 문항 유형이다. 하나의 사물을 바라볼 때, 그것이 지닌 표면적인 의미 외에 사물 속에 내재하는 의미까지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기>를 통해 깨달을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가)를 감상할 때, 고향을 다녀온 화자가 자신의 낡은 구두를 보면서 새삼 고향에 대한 여러 상념들을 떠올리는 것은 고향에 대해 무심하게 살아온 자신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을 뿐 아니라, 고향을 늘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낡은 구두에는 고향에 대한 지속적인 그리움과 애정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는 ⑤에 적절하게 제시되고 있다.
- 54) ㉠ ③ [해설] (나)는 세 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는 작품으로, 반복과 대구를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특히 1연과 2연은 매우 유사한 형식을 지니고 있어 운율의 효과가 더욱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3연에 이르러서는 앞부분에서 이루어진 강한 형식적인 요소가 다소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작품 감상에 긴장감을 불어넣어주고 단조로운 느낌을 약화하는 효과를 가져 오고 있다. 그러므로 ③에서 각 연의 세 번째 연이 모두 동일한 형태로 반복되어 후렴구로 기능하고 있다는 내용은 <3>에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므로 적절한 서술이라고 볼 수 없다.
- 55) ㉠ ⑤ [해설] (다)는 멀리 계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아들의 절절한 심정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마음은 늘 어머니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꿈속에서는 늘 어머니 계신 곳으로 달려가 어머니를 뵈고 있지만, 화자의 현실은 지극한 그리움만 안고 있을 뿐이다. 이 때, 흐르는 '내'와 창가에서 노닐고 있는 '새'는 어머니에게 가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 화자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와 '새'는 화자의 지극한 그리움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함축적 의미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 56) ㉠ ③ [해설] [출제 의도] 작품을 종합적으로 감상하는 능력이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에는 꽃이 지고 녹음이 돋는 계절이 '또 한번' 돌아왔다고 하여 끊임없이 순환되는 자연 질서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 있으며 이러한 자연의 순환적 질서를 배경으로 시적 화자가 느끼는 감회가 표

현되어 있다.(다)는 월령체 형식의 노래로, 월을 단위로 순환되는 자연 질서를 바탕으로 하여 시적 화자의 감회를 드러내고 있다.

- 57) ㉠ ⑤ [출제 의도]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시구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를 참고하면 불꽃은 몽상을 불러일으키는 이미지 중 하나이다. 등불은 불꽃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불꽃이 지니는 몽상적 이미지와 관련된다. 작품의 흐름을 보면 시적 화자는 한밤중 내리는 눈을 보며 자신만의 '몽상(생각)'에 빠져 들어 '잃어진 추억'을 되살리게 된다. 이로 미루어 시적 화자가 마음에 켜는 등불은 시적 화자가 마음 속, 즉 내면으로 깊이 침잠해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58) ㉠ ① [해설] [출제 의도] 작품의 표현상 특징과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어이할까나'를 의문형 표현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마음속 깊은 정회를 드러낸 것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② '어이할까나', '아-', '-어라' 등의 표현에서 시적 화자는 마음 속 깊은 정회를 드러내고 있다. ③ '펄펄펄 펄펄펄'에서 의태어가 반복 사용되어 꽃잎의 떨어짐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④ '붉은' 색채 이미지를 통해 '꽃잎'에 대한 시적 인상을 선명하게 하고 있다. ⑤ 1연과 마지막 연에서 시구가 반복변주되고 있다.
- 59) ㉠ ③ [해설] [출제 의도] 관련 되는 작품을 비교하여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의 시적 화자는 '남'을 만나고 싶은데 '남'이 오지 않음으로 해서 슬퍼하고 있다. 그러나 시적 화자의 대립된 욕망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④ (다)의 ㉠에서 시적 화자는 홀로 지내는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고만 있지만 <보기>의 시적 화자는 강가에 나가 '남'을 기다린다는 점에서, <보기>에는 '남'이라는 상대방을 향한 구체적 행위가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 60) ㉠ ② [출제 의도] 시구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내리는 눈을 공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에서 서러운 몸짓을 하는 대상은 '꽃잎'인데 이는 '남몰래 혼자서' 사랑을 가진 시적 화자의 심정이 투영된 것이다. ㉢에서는 우는 '꾀꼬리'와 그렇지 못한 시적 화자가 비교되면서 시적 화자의 심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에서는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닌 대상에 대한 예찬의 태도가 나타난다. 그러나 ㉤의 경우 대립된 시어의 병치는 나타나지 않는다.
- 61) ㉠ ① [출제 의도] 조건에 맞게 시를 창작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①의 시적 화자는 '그대 간 곳은 알 수 없구나'라며 떠난 '그대'를 그리워한다는 점에서 ㉡의 시적 화자의 상황과 정서가 유사하다. '복사꽃'은 '그대'와 대조되면서 '그대'를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 '굿고리새'와 시적 기능이 유사하다. 또 '그대와 복사꽃이 서로 붉게 빛났던 작년과' '복사꽃은 여전'하지만 '그대 간 곳은 알 수 없는' 현재가 대비되고 있다. [오답풀이] ②는 시적 화자가 그리운 대상(내 살던 곳)을 떠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의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과 다르다. 따라서 <보기>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다.